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님들,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주일은 대림 2주일, 자선주일입니다. 자선의 의미를 생각하고, 복음말씀 중 "의심을 품지않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며, 가톨릭신문에 기재된 어느 신부님의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며 나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58651

[(자)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12월 11일 복음 말씀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11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디오 링크입니다  <http://tinyurl.com/hz7rsfn>

12월 첫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행사>

산악회 점심식사 (12/4 주일)

산악회 형제/자매님들께서 하모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주신 갈비를 사랑방에 모여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청년들이 봉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하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챙겨주신 산악회 분들께 감사카드로 작은 정성을 모았으니 아직 작성하지 못한 님들은 다음주에 꼭 써 주세요~ 산악회 분들을 비롯, 하모니를 아껴주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하느님 보시기에 기쁜 우리 하모니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요~

청년 마르코복음 모임 (12/2)

지난 금요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명의 청년들이 마르코복음 성서모임을 시작 했습니다. 최 신부님의 지도아래 앞으로 매주 금요일, 16주에 걸쳐 진행될 마르코복음 성서모임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번에 함께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시고, 계속 관심가져 주세요.

기도, 생미사 봉헌 (12/11 아침미사)

최근 근무중 사고로 인해 생사를 넘나들며 여러번의 수술을 하고있는 옛 뜨락 회원 **전창규 라비 로베르또 형제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 드립니다. 또한 형제님의 아내 한경희 레베카 자매님 (옛 뜨락회원)을 비롯한 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들 기도속에 기억해 주세요. 형제님의 빠른 회복을 기도하며 다가오는 **주일 (12/11) 미사에 로베르또 형제님을 위한 생미사를 하모니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성당 성탄 트리 장식 (12/10 토)



성탄을 준비하며 하모니와 뜨락회가 성탄 트리 장식/대림환 설치를 다가오는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성당에서 만나, 우리 성당 우리 손으로 예쁘게 같이 꾸며요~

2017년도 동계 수련회 / 스키 캠프



연중 행사인 2박3일 레이크타호 동계 수련회가 2017년 1월 13일(금) - 1월 15일(일)로 정해졌습니다. 준비를 위해 참석 인원 수 파악이 필요하니 **12/11일까지** 참석여부를 알려 주세요. 본 공지 메일을 받는 **하모니 회원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많은 분들 함께 타호에서 새로운 한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회장단 선출

2016년 한해가 얼마남지 않았고 더불어 올해 회장단 임기도 마무리할 때입니다. 2017년 차기 회장단 선출이 12월 안에 있을 예정이며 신부님 지침에 따라 차기 회장단 선출전에 현 회장단이 신부님을 뵙고 상의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2017년도 하모니를 이끌어가며 함께 봉사할 회장단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표

몇달 전 신부님께서 서로의 이름과 본명을 익혀 서로에게 관심갖는 공동체가 되자는 취지로 시작하신 이름표 부착 지침 기억 나시죠? 물론 신부님께서 신자들의 이름/본명을 기억하시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서로의 이름/본명을 익히고 성당 교우분들과 본명을 제대로 알고 인사하는것도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안에서조차 본명이 잘 기억나지 않을때가 있으니 이름표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의 본명을 부르는것도 좋겠죠? **이름표를 못 받았거나 분실한 님들,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면 다가오는 주일날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회합/모임

하모니는 매주 회합을 통해 성당 소식을 공유하고 개인 소식을 나눕니다. 지난 회합중 돌아가며 짧게나마 개인적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상대의 생각이나 바램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주 얼굴보는 사이어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기회가 쉽지는 않죠. 우리 하모니는 이런 소중한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신앙안에서 아름다운 인연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회합중이나 회합후 모임시 이야기 나눌 시간을 마련해 보겠으니,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부담없이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알아가며, 배우고 챙길 수 있는 그런 감동의 하모니를 만들어가요!

<대림시기 안내>

보라색 대림초에 이어 연보라색 대림초에도 불이 밝혀진 **대림2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성탄 대축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탄 전 **4주간 대림시기**를 판공성사, 특강, 성경쓰기, 성탄행사를 통해 보다 뜻깊고, 거룩하며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림 판공성사: 대림시기 동안 매 미사전에 판공성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 고해 성사인 판공 성사를 받으시고 성사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림 특강: 12/11 주일 미사 후 주임 신부님의 지도아래 대림 특강이 있습니다. 하모니는 회합 후 함께 참여합니다.

일시: 12월 11일 (주일) 오후 1시 - 4시

지도: 최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

주제: 나는 ○○이다.

3. 대림절 성경쓰기:  성탄을 맞이하여 참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요한의 첫째, 둘째, 셋째 서간 쓰기를 함께합니다. 쓰기를 마친 성경노트는 성탄성야미사 (12/24)때 봉헌합니다.

4. 성탄 행사 - 영화 상영: 12/24일 (토) 성탄 성야 미사 전, 오후 7시에 성당에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 성탄 전례 및 송년 전례 안내 ****

성탄 성야 미사 : 12월 24일(토) 저녁 9시


성탄 미사 : 12월 25일*(일) 오전 11시

송년 감사 미사 : 12월 31일(토) 저녁 8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의무축일) : 2017년 1월 1일*(일) 오전 11시

*12월 25일, 1월 1일 아침 8시 미사는 없습니다.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하모니 밴드 (BAND) *******

하모니 안에서의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매주 이메일 공지와 더불어 사용하고 있는 SNS, BAND계정입니다.

번개 모임도 하고 소소한 하모니 소식들 많이 나누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사진도 올려 주시고 여러 많은 정보들 공유해 주세요.

미가입 분들을 위한 가입 신청 링크입니다: <http://band.us/n/a4a8Q4J3Kf0fw>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 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김정호 이나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